

제6장 The legacy of the Western Zhou

서주 왕조의 힘과 영화가 너무 빨리 지나갔지만 약화 과정은 상당히 오래 지속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

쇠락과 몰락의 과정: 외부 압력 아래 내부 문제의 결과 쇠락, 일부 주의 동맹이 가세한 갑작스런 외부 침입의 결과 몰락

서주시대 핵심 서적을 통한 이후 중국 문화에 대한 영향을 주목할 필요

중국 문명의 형성에 대한 서주의 가장 기본적인 기여에 대해 분석: 서주의 유산에 대한 문화적·정치적 접근

첫째, 진한 제국이 중국의 제국적 구조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서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둘째, 집단적 자각 의식으로서의 惟夏 대 야만의 구별의 출현

셋째, 진 제국 이전 주민들의 문화적 통합에 대한 서주의 영향에 대해 분석

제국을 위한 교훈

서주국가의 성격: 봉건제도, 중앙집권화된 황실 통제

서주의 봉건제도는 중세유럽의 봉건영주제도에서 채택되는 제도와는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 지역 통치자(제후)는 세심하게 구성된 혈연 구조와 압도적인 황실 무력에 의해 뒷받침

서주 중기 황실 지배영역의 내적 통제가 제한된 규모의 관리에게 일부 부여되었지만 서주는 세심하게 조직된 관료조직에 의한 전체 영역의 집권화된 통제를 시도하지는 않았다는 점

봉건제도는 서주 초기 특별한 환경에 성공적: 혈연관계에 의해 형성된 제도는 동쪽 평원과 그 이외 지역에서 반역적 주민들을 황실이 통제하는데 효과적 수단으로 작동, 특히 제후국의 덕택으로 서주황실은 거의 모든 시기, 거모든 방향에서 적과 대치하기보다는 공격할 적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

그러나 서주 중기 봉건제도의 어두운 측면 노출: 제후국의 힘의 증가하고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서주 지배영역에 대한 황실 통제에 부정적으로 기능, 제후국간의 전쟁은 봉건제도가 달성하고자 구상했던 정치적 통일에 대한 희망을 파괴

진의 통치자들은 이러한 서주의 교훈에서 군현제도를 진의 전체로 확대

진제국 초기 36개의 군을 두었으나 제국황실의 대부분 관리들은 주나라의 시스템은 정치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식이라는 인식은 잔존

거대한 제국이 지배영역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적 대안으로서의 군현제도: 진제국의 왕자가 아닌 잘 훈련된 관료를 파견

李斯: 제국의 확장된 영토가 미래의 군지도자(warlord)의 통제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적 치유책을 진 제국에 제공

- 제국의 미래의 잠재적 병을 처방하였지만 즉각적 실패로부터 제국을 구하지는 못하였다는 점: 15년 만에 망한 것은 외부세력이나 지역통치자가 아니라 농민과 구서주귀족의 일부로 구성된 대규모 반란세력

중앙집권화된 진제국의 조기 붕괴는 진체계가 심각한 문제를 내포, 동시에 서주 시스템의 밝은 면도 있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점

서주가 몰락한 이후에도 정치적 정당성의 필요에 의한 제후국들의 지지 덕분에 주의 조정과 주에 대한 승배는 500여년 지속

그러나 진 제국에서 유방이 일어났을 때 누구도 제국의 곤경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는 점→ '인간의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

한제국은 서주와 진제국의 혼합형

- 서부지역에서는 주로 진제국의 기본적 행정구조 유지

- 동부지역에서는 주로 서주의 특징을 유지: 왕국은 일부 초기 유방의 장군과 제후국 가문의 후손에 의해 세워졌으나, 유방은 점차 이들을 제거하고 유방가문의 구성원으로 대체

한의 황제는 군과 혈연의 손에 있는 왕국의 균형을 기함으로써 제국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사고

다만 왕국(kingdom)의 경우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사실상 왕국의 왕들은 규모있는 영토가 없게 되는 상황

→ 이러한 '왕국 없는 왕'이라는 새로운 지역신분이 이후 거의 모든 중국 황실의 제국구조의 규범으로 작동: 제국적인 관료적 지배를 부과하려는 필요와 제국전역에 걸친 혈연적 유대를 구축하려는 필요를 동시에 충족, 잘 훈련된 관료제도와 '인간의 윤리적 가치' 사이의 균형 도모, 이러한 균형은 서주에서 시작되어 다양한 조정과 적응을 거친 역사적 과정의 결과

공통의 서주 경험

華夏라는 문화적 자각의 출현

주와 戎과 夷 사이의 구별이 서주 청동 비문과 서주 문헌에 자주 등장

다만, 서주 시기 戎은 호전적 외국인과 같은 의미, 夷는 정복가능한 바깥(foreign)에 가까운 의미

→ 구별이 문화적 혹은 종족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서주국가는 이질적 복합체, 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족적 배경과 문화적 전통을 가진 주민들을 포괄, 주의 영역에서 종족성은 제한된 역할 수행

상과 주와의 관계

주가 상의 문화적 계승자라 하더라도 주는 자신과 상을 융과 이에 반대되는 종족적으로, 문화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점

대조적으로 상과의 관계가 적대적이었을 때 상에 대해 융이라는 단어 사용

즉, 서주 시대 용이라고 지칭될 때 주는 이들을 문화적이고 종족적 타자라기보다 정치적 군사적 적이라고 인식

夷는 잠재적 노예의 자원으로 인식

춘추전국 시대 중기 문화적 구별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

화하는 주세계 주민들 사이의 통일성의 자각과 동질적인 문화적 종족적 기원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점

華는 서주 정치적 힘의 축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華山에서 유래

동시에 용은 문화적 종족적으로 화하 사람들과 다른 사람을 지칭

화하나 중국 사이의 관계가 아무리 적대적이라도 상호 용이라는 지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중국과 용 주민사이의 관계가 아무리 친밀하다고 하더라도 이들 사이의 구분은 근본적이라는 점

용과 적은 인간성의 감정이 없고 탐욕스러운 존재로 구별

정치적으로 주의 국가들은 용의 공동체와 다양한 동맹을 형성할 수 있으나 문화적으로 용은 차별화

용과 적에 대한 비문과 문헌상의 불공정한 공격의 이면에는 천명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때 북중국 지역의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정의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

구별개념의 출현 요인

서주가 몰락하면서 용과 적의 주민들이 주 세계의 영역으로 밀려오면서 원주민 국가들은 자신들의 영역에서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 힘겹게 싸워야 하는 상황

화와 하의 개념은 자신들의 공통된 적에 대항하여 원주민 중국 국가들의 통합을 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전략으로 출현

원주민 국가들이 지리적으로 용과 적의 정치체와 혼재해 있을 때 이들 국가들을 용과 적의 정치체와 구별짓는 것은 서주로부터의 공통된 유산

구별개념 출현의 또 다른 요인은 화와 용 사이의 생활스타일의 대조가 춘추시대에 명백해졌다는 점

상과 서주 시기 Northern Zone에는 사냥을 병행하는 목동과 농부가 혼재하여 거주, 이러한 생활스타일은 사냥 등을 병행하면서 살아가던 상과 주 주민의 생활스타일이 별도 차이가 없었다는 점, 다만 차이는 집약적 농업인지 아니면 비집약적 농업인지의 차이

그런데 점차 이러한 광범위한 Northern Zone이 사라지면서 서주는 북쪽의 유목민과 직접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으로 변화

주의 사람들은 점점 더 농업적이고 도시화되어 갔다는 사실

춘추시대 생활스타일의 대조가 가시화되었으며 이것이 주와 이들 사이의 정치적 문화적 반목을 야기

가장 중요한 화하개념 형성이 이유는 주 세계의 내적 구조와 사회생활

초기 화와 하는 종족적으로 동질적이지는 않았다는 점
그러나 서주 274년 동안 서주 국가는 통일된 엘리트 문화의 지도 아래 주 세계 주민들에게 문화적·종족적 동질감을 점진적으로 형성
서주국가들은 동일한 통합체 내 동료로서 서로를 인식하고 공통의 문화적 전통을 가졌다고 인식
서주국가는 기원이 다른 다양한 주민들을 지리적으로 Ji 황실가문을 확장하고 Ji 엘리트와 비Ji 엘리트 사이의 결혼을 확대함으로써 동질감 도모
이러한 방식으로 서주는 주세계의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
또한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압력에 직면하여 동주시대 중국의 엘리트들이 지지를 이끌어내는 주된 원천을 제공

지역문화의 배경

춘추시대 고고적학 선행연구는 다양한 지역문화-주, 위, 진, 연문화- 담구에 주력
그런데 문화적 동화 혹은 동질화 과정은 기원전 771년 서주의 몰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주 시기에도 지속된다는 점
서주말 주 세계 주변에서 독특한 형태의 청동을 생산하고 춘추시대 중기 많은 지역에서 차별화되는 독특한 형태이 청동을 개발
그러나 춘추시대 주세계의 전체 영역에 걸쳐 주의 근검시스템(sumptuary system)을 준수하는 것을 발견
신분에 맞는 용기세트의 사용
매장 청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단일 의례규정 시스템은 대부분의 서주시대에는 준수되지 않지만 서주몰락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
서주 몰락에 따른 정치적 통합 와해에도 불구하고 공유된 문화적 가치가 서주 세계의 엘리트들을 결속시키고 있다는 점
이러한 현상이 주 세계에 걸쳐 발굴되는 유물에서 가시화
동주시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문화적 동질화는 Ji가문의 확장과 Ji가문과 비Ji가문의 결혼을 통해 서주 국가에 의해 발생한 종족적 동질의 물질적 표현이라고 주장
예를 들어 그러한 결혼은 상이한 국가간 청동기 교환 수반
이러한 과정이 어디에서 주도되었는지 명백하지 않지만 이러한 전환이 주세계의 모든 부분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점
주 지배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었던 의례관행의 대중화 과정
이러한 점엿 서주는 종족적 핵심인 동시에 중국 문명의 지속적 번영을 위해 중요한 문화적 기반으로 작용